

민주노총 지역조직 강화해야

김 금 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민주노총이 출범한 지 수개월이 지났다. 자주적 전국중앙조직으로서 민주노총 건설이 갖는 의의는 역사성을 지니는 것이며,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자기 위상과 임무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출범 뒤 처음 치르는 임·단협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을 힘있게 추진해야 하는 한편, 주체적인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하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산하의 산업·업종별 연맹들과 지역본부 조직들의 역할, 또 그들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원과 지도가 중요해질 것인데, 산업·업종별 연맹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기업별 교섭 및 조직형태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실천적 논의와 활동들이 전개되어 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의 수평적 조직인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활동원칙과 투쟁과제 등에 대해서도 보다 풍부하고 실천적인 논의가 필요한 듯하다. 지역본부의 역할은 산별연맹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반면, 과거의 지역별 협의체와는 다른 위상과 역할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

노동조합은 산업별 단결과 지역별 단결이 교차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산별은 주축이고 지역조직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조직과 산별조직은 고루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산별조직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동투쟁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며, 산별노조의 지역조직이 지역공동투쟁을 잘 해야 그 지역의 노동운동이 발전한다. 하나는 날줄이고 하나는 씨줄이다. 이러한 관계는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형성과정에서 발견되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노동조합 조직형태 발전과정을 보더라도 1890년대에는 직업별이나 산업별 조직의 개념이 없었고, 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먼저 생겼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1893년에 이탈리아노동협의회연맹이라는 최초의 전국적인 조직이 탄생하였다. 마치 지노협이 발전하여 전노협이 탄생한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서노협이 생겼을 때는 제조업뿐 아니라 보험회사, 병원, 건설회사 노조도 모두 서노협에 포괄되었다. 이 안에서 산업별로 분화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업종 연맹들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라마다 발전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산업별 노조와 지역조직이 상호 결합될 때 전체적인 노동운동의 힘이 강화됨은 분명하다.

지역본부는 우선 지역 민주노총이라 할 수 있다. 즉, 업종이나 직업을 불문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의 공통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체가 지역본부인 것이다.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조합, 모든 노동자의 공통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산업별 연맹이나 업종별 체제의 이해관계를 조정, 통일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역본부 역시 지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 단위에서의 임·단투 준비, 공동교육, 투쟁시기 조정 등이 그 하나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그 지역의 단위 노조에 투쟁이 벌어졌을 때, 또는 그 지역의 연맹조직이 공동투쟁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투쟁의 대상을 설정하여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까지 공동투쟁을 지도·지원하는 것이 지역본부의 역할이 된다. 지역적인 노동탄압에 대한 공동대응은 과거부터 지역조직의 중요한 임무였다.

한편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도 역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미조직 대책은 연맹이나 민주노총이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부적 계획과 구체적인 담당주체는 지역조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 차원의 상담활동, 교섭활동, 조사활동, 복지활동 등에서 지역본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의 지역본부에서 소비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차원이긴 하지만 조합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인다는 의미와 더불어 조직 확대·강화의 방편이 된다. 무주택 조합원들의 주택건설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다.

노조 정치활동을 추진하는 데서도 지역조직의 역할은 막중하다. 예를 들어 총선, 지방선거에서 구체적인 선거구는 지역이다. 유럽에서처럼 사민당이나 노동당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지구당이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구체적인 발판이 되기도 한다.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활동에서도 지역본부의 역할과 그 위상은 날로 중요

해 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공단지역처럼 한 도시 전체가 공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의 민주노총 지역조직은 지역주민들과의 강력한 결합력에 근거한 높은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지역정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지역조직은 지역주민운동을 주도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 주민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노조 지역조직이 주택, 교육, 교통, 공해, 오물, 세금문제 등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민들과 보다 긴밀히 결합하여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럽 노동조합들은 지역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조직형태는 달라도 지역조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영국, 덴마크가 각기 조직의 형태는 다르지만 지역조직은 거의 동일하다. 독일은 지역분부가 13개가 있고 그 밑에 150개 지구 또는 지부가 있다. 13개 지역분부는 주정부 단위로 있기 때문에 통괄 기능만 하고 있을 뿐이고 지역활동은 주로 150개의 지부가 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조직이 지방, 지역, 지구의 세 단위로 되어 있으며 지역활동은 주로 780개의 지구위원회가 하고 있다. 영국은 지역조직이 9개, 지구조직이 317개이며, 9개의 지역조직은 총괄 및 연락기능만 맡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활동은 317개의 지구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지역조직들이 도 단위는 주로 총괄하는 일을 맡고, 지역·지구 단위가 실제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공동투쟁의 원칙과 투쟁과제

지역분부의 활동에서 유념해야 할 공동투쟁의 원칙과 투쟁과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산별조직의 지역지부 또는 지역조직의 투쟁을 강화하고 그 힘을 통해서 지역전체 차원의 투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공동투쟁은 배제하고 전부 산별투쟁만 한다면 조직역량 강화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예를 들어 산별연맹이 구축되지 않은 화학, 섬유, 운수부문의 공동투쟁은 누가 조직하고 지도할 것인가? 지역조직이 포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산별조직과 지역조직,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 주는 것이 지역의 공동투쟁이다. 공동투쟁은 투쟁성과라는 측면에서 요구조건을 몇 % 따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힘을 엮어나가는 것 자체가 민주노동조합 진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 된다. 그런 투쟁에 동참하는

조직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공동투쟁이 대중성을 띠는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산별체계가 되어도 투쟁은 주로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투쟁을 수행하는 데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결국 지역 단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병노련이나 사무노련이 공동입투를 한다고 해도 그 투쟁이 지역공동투쟁 조직과 결합할 때 비로소 그 투쟁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 투쟁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지역공동투쟁은 대기업의 횡포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투쟁과 단위사업장 차원의 투쟁을 결합시킨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쟁 지원, 또는 지역공동투쟁에 힘을 실을 때 그 노조의 조직력 강화는 물론이고 그 지역 공동투쟁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업장 단위의 투쟁과 독점자본에 대한 공동투쟁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지역공동투쟁이 하게 된다.

네 번째, 노동법개정투쟁과 같은 전국적 투쟁형태 역시 지역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아서는 구체성을 가질 수가 없다.

다섯 번째,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 역시 지역 단위가 될 수밖에 없다. 서울지역은 연맹이 대부분 서울 지역에 있으니까 직접 연맹이 앞장설 수도 있지만 여타 지역의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는 지역조직의 몫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맹은 아무래도 간접적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섯 번째, 지역공동투쟁을 벌여야 할 일 중에서 지역 차원의 주택문제, 교육문제, 교통문제, 공해문제, 생활문제 등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결합된다. 또, 민족민주운동 또는 민중운동과의 결합이 중앙 단위에서 만이 아니라 좀더 구체화된 형태로 지역 차원에서 확산하기 위해서도 지역공동투쟁이 주민생활 옹호 투쟁과 지역차원의 민족민주운동과 결합되는 것이 전체 민족민주운동과 민주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의 구체적인 고리가 되는 것이다